

지옥 관문 뚫은 기보배 <대표팀 선발전> **금빛시위 당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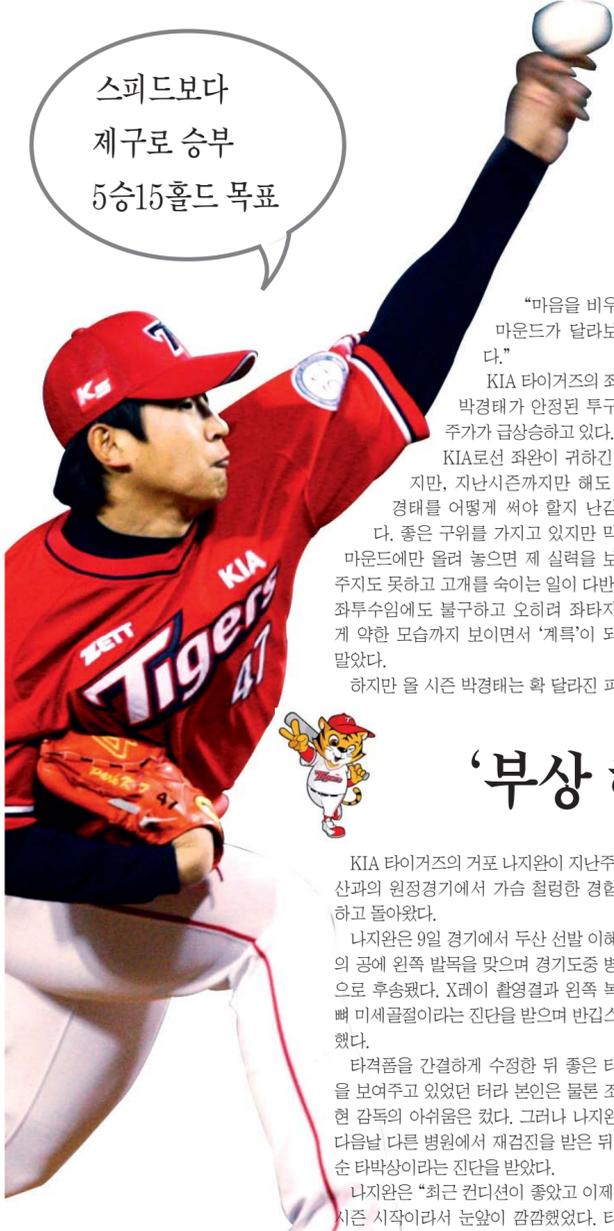
세계선수권·U 대회 출전
 여자 태극궁사 대폭 물갈이
윤옥희·주현정 신궁들 탈락

광주시청의 기보배가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12일 제46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제26회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한 양궁 국가대표팀 꾸러졌다. 남자부는 지난해와 그대로지만 여자부는 대거 교체가 이뤄졌다.
 기보배는 12일 태릉선수촌에서 계속된 국가대표 마지막 3차전 평가전에서 배집 함께 19점을 기록해 21점의 한경희(전북도청)에 이어 태극마크를 달았다. 정다소미(18점·경희대)도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경희는 2009~2010년 태릉선수촌 합숙 훈련에 참가했지만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보배는 지난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1차선발전에서 6위로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2·3차 선발전에서 안정된 기록으로 대표팀에 최종 선발됐다.
 기존 대표 선수 중에서는 기보배만 유일하게 생존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해 광주 아시아인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주현정(현대모비스)과 김문정(청원군청), 윤옥희(예천군청) 등 국제 양궁계에서 전설로 통

하는 '명궁'들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물갈이가 이뤄졌다.
 기보배로선 올림픽만큼 어렵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지옥'을 통과하면서, 한국 여자양궁의 막내에서 대표팀을 이끌 최고참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기보배는 "지난 달 호주에서 열린 1차 선발전에서는 컨디션 난조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2·3차 선발전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것이 주요한 것 같다"며 "세계선수권 대회의 유니버시아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남자부는 지난해와 같은 멤버로 대표팀이 구성됐다.
 오진혁(농수산흥소풍)이 국가대표 남자부 마지막 3차 평가전까지 배집 함께 23을 기록해 1위에 올랐고, 김우진과 임동현(청주시청)이 각각 22.5점과 19점을 기록하면서 3명에게 주어지는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다.
 지난해 광주아시아인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세 선수는 오는 7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 금메달을 겨냥하게 된다.
 장영술 대표팀 총감독은 "남자부는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구성돼 안정적이지만 여자부는 새로운 선수 2명이 들어오면서 경험을 쌓아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양궁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에서 기보배, 한경희, 정다소미(왼쪽부터)가 화살을 쏘고 있다. 이번 평가전에서 선발된 남녀 국가대표들은 7월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연합뉴스



스피드보다
 제구로 승부
 5승15홀드 목표

좌완 박경태 KIA '불펜의 희망'

"마음을 비우니 마운드가 달라보인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박경태가 안정된 투구로 주자가 급상승하고 있다.
 KIA로선 좌완이 귀하긴 하지만, 지난시즌까지만 해도 박경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했다.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지만 막상 마운드에만 올라 놓으면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 다반사.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좌타자에게 약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계류'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올 시즌 박경태는 확 달라진 피칭

으로 자신의 틀을 깨고 있다. 시범경기에서부터 과감한 승부로 2011시즌 도약을 예고한 박경태는 개막 후 7경기에서 5경기에 등판해 2개의 홀드를 기록했다.
 바빠진 KIA 불펜에서 새로운 특급 소방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스피드보다 제구에 초점을 맞춘 게 주요했다.
 박경태는 "지난해보다 구속이 3~4km 정도 줄었지만 제구에 더 주력하고 있다. 제구가 잡히면서 슬로우 커브도 주요 공략구로 잘 사용하고 있다"며 "날이 따뜻해지면 직구 스피드도 더 오를 것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변화가 박경태의 변화를 이끌었다.
 박경태는 "그동안 야구를 잘한다고 자만

세단뛰기 간판 김덕현 대구 세계육상 '올인'

기술보완 훈련... 결선진출 목표
 육상 남자 세단뛰기의 간판 김덕현(26·광주시청)이 충실한 동계훈련으로 체력과 속도를 끌어올리며 8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태릉선수촌에서 김덕현을 지도하는 김혁 대표팀 코치는 12일 "그동안 속도를 많이 보강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7년 오사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라 9위를 차지했던 김덕현은 한국 육상계가 올해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선수 중 하나다.
 김덕현은 대구 세계대회에서 한국 육상 선수 중 결선 진출에 가장 근접한 선수로 평가받는다.
 세계선수권대회 10개 종목에서 10명의 결선 진출자를 내겠다는 대한육상경기연맹의 '10-10' 전략에서도 김덕현이 가장 빛나게 올라 있다.
 김덕현이 2009년 6월 작성한 한국기록(17m10)은 1995년 수립된 세계기록(18m29)에

는 한참 못 미친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쓰인 기록 중 가장 좋은 게 17m98(2010년)일 정도로 기록 정체 현상이 심해 아시아인의 한계를 뚫고 김덕현이 이번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육상계의 예상이다.
 태릉에서 혹독한 동계훈련을 치른 김덕현은 8월 대구에서 참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전담팀까지 꾸리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에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하체가 강해졌다. 지난해 아시아인게임 직전 최대 260kg을 들어올렸던 김덕현의 하체 근력은 동계훈련을 거치면서 280kg까지 올라왔다. 자연스럽게 도약단기 속도도 빨라졌다.
 김덕현은 지난해 30m를 3초86에 주파했지만 벌써 3초80까지 기록을 단축했다. 70m 달리기도 7초73에서 7초50~60대까지 기록이 향상됐다. 김덕현은 기술적인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내달 11일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육상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부상 해프닝' 나지완 투런홈런 팡

KIA 타이거즈의 거포 나지완이 지난주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가슴 철렁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나지완은 9일 경기에서 두산 선발 이혜천의 공에 왼쪽 발목을 맞으며 경기도중 병원에서 후송됐다. X레이 촬영결과 왼쪽 복사뼈 미세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며 반갑스를 했다.
 타격폼을 간결하게 수정한 뒤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었던 터라 본인은 물론 조범현 감독의 아쉬움은 컸다. 그러나 나지완은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뒤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지완은 "최근 컨디션이 좋았고 이제 막 시즌 시작이라서 눈앞이 캄캄했다. 타박

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바로 갑스를 벗어 던졌다"면서 함박 웃음을 지었다.
 오진에 엔트리 소동도 벌어졌다. 골절일 경우 한 달 여 가량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때문에 10일 바로 나지완의 엔트리 말소가 예정됐었다.
 하지만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나지완의 엔트리 말소 계획이 급히 취소됐다. 엔트리가 말소되면 10일 간 1군 출전이 불가능하다.
 넥센 히어로즈와의 홈경기가 열린 12일, 훈련 시작에 앞서 조범현 감독은 "뭘 수 있나?"며 나지완의 컨디션부터 살폈다.
 "통증은 없는데, 아직 빨리 뛰어보지 않아서 다시 체크해보야겠다"는 나지완의 대답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서울 종로점을 4월5일 개점하였습니다!

지방에서 보청기 사용증 불편사항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관과 옆)

충장점 062-227-9970

www.kjhr.com

국제보청기